

특집 I / 1995년도 수의·축산 정책 세미나 ④

WTO 시대 축산을 지키기 위한 수의과학의 역할

이 재 진

서 론

WTO 출범과 실천적 대응방안에 있어서 과연 농축산업부문에 대한 영향은 어떠한가? 전문연구기관은 다음과 같이 답을 하고 있다.

'95년부터 10년간 한국의 GNP는 농업소득 감소분을 빼고도 총 300억달러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농업부분은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쌀, 보리 등 곡물류와 감자, 고구마,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감귤, 고추 등 15개 품목에서 발생하는 생산자 소득이 올해부터 2001년까지 7년동안 약 8조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축수산업의 대 GNP 비중도 '92년 7.8%에서 2001년 2.8% 수준으로 떨어지고 농축수산물 무역적자도 92년 42억 6천만달러에서 2001년 1백30억 3천만달러로 크게 늘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WTO 시대의 축산을 지키기 위한 수의과학의 새로운 역할이 요구되는 때다.

수의연구조직의 시대적 변신

이렇게 시대적 요구사항에 부응하기 위하여 '94년 12월, 52년만에 기관명칭을 “가축위생연구소”에서 “수의과학연구소”로 새옷을 갈아입고, 9개과중 4개과의 명칭을 변경하였는데 병리과를 현장 병성감정

* 농촌진흥청 수의과학연구소장

업무를 강화한 병리진단과로 “병독과”를 “바이러스과”로, “잔류독성과”를 축산물의 안정성을 폭넓게 연구하기 위한 “안전성과”로 “해외가축전염병과”는 “해외전염병과”로 변경하였으며 특히 해외전염병과는 한시직제에서 정규직제로 바뀌면서 임무에 있어서도 해외가축전염병예방에 관한 연구와 축산물의 위생학적 관리에 관한 연구 및 인수공통전염병에 관한 연구를 특히 강화하였다.

'94년도 주요 결과

- ▶ 높은 면역력을 가진 5종의 백신개발로 면역효과로 95%까지 올리고 예방을 성력화시키고 예방약 생산 경비를 50%까지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며,
- ▶ 신속진단법 8종을 개발 및 개량하였는데 과거 7일 걸리던 진단시간을 4시간이내로 성력화시키고, 확진율을 올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 ▶ 가축질병방제 신기술개발 4종을 하였으며 폐사율을 30%이상 감소시켜 경제적 피해감소를 시킬 수 있는 결과를 알았다.
- ▶ 동물약품 품질관리개선에 관한 연구를 3종을 하여 검정방법개선, 유통기간 재질표 등을 하였다.
- ▶ 근간 가장 큰 국민들의 관심사인 축산물 안정성 연구는 3종을 하여 잔류물질 간이신속 진단키트 등의 개발을 통하여 검출감도와 정확성을 높이고 검사시간을 6~8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이는 결과를 얻어

일선 검사기관에서 간단하게 검사할 수 있도록 시책 건의하여 현장 활용도룩할 계획이며,
 ▶특히 가축질병검색 및 기술지도 6,729건을 실시하여 농가현장지도 및 소득향상에 기여하였다.

그동안의 성과의 결산과 장기 추진 방향

▶해외전염병 계속 유입 가능성은 증대되고 있으며 대상 전염병 60종중 악성에 해당되는 질병이 13종이어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연구강화를 위한 조치로 특구차폐 연구실 신축에 60억원의 예산을 들여 '95. 7월경 준공(3년간 공사)되면 방제기술연구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
 ▶양축 현장에서는 질병이 복합적으로 발생되고 급속히 확산될 수 있으므로 간이진단과 신속한 진단 및 처방으로 치료법을 지도를 하기 위하여는 모든 질병이 간이진단법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가축질병예방의 성력화를 위하여는 간이에방법의 개발이 필요하고 새로운 혈청형 질병발생에 따른 새로운 백신개발이 필요하다.
 ▶축산물 등 유해잔류물질 방제를 위하여는 국내 수출입 대상국에 대한 새로운 정보수집의 강화로 공정분석법 개발 확대와 규제물질 허용기준 설정확대를 통하여 새로운 개발기술을 각 시·도 실무자에게 기술전수를 신속하게 하여야 할 것이며, 수의과학연구소에서 개발된 연구결과가 시책건의를 통하여 현장 적용이 되어야 할 것이며, HACCP 제도도입이 도축장 및 가공장에 시급히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95년 발전계획의 특징

▶수의연구의 세계화로 무한경쟁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는 우리 축산업의 자생력과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있으며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첨단기술

개발과 현장에로기술 완전해결로 생산비를 절감하며 우리 축산업을 첨단산술생물산업으로 전환하는데 있다.

특히 축산물의 품질과 가격경쟁력 재고를 위한 가축생산성 향상기술개발이 시급하고 현장의 독창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사육단계로부터 유통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제도개혁이 필요하다.

▶동물약품관리방향

그간 35년간 국가관리의 국가검정위주 제도에서 선진국형 사후관리제도 및 자율관리제도 강화 즉, 우수동물 의약품 제도와 품질관리제도가 적극 채택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기관은 새로운 동물의약품 치료개발과 유효성 및 안정성평가업무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94년말에 수의과학연구소에서 건의한 "유효성 안정성평가기준에 의하여 국내제조나 수입완제품에 대한" 야외에서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수의기술의 과학화와 국제경쟁력 확보계획 첨단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기술개발 및 방역기술의 성력화와 생산현장과 연계된 독창적인 기술개발 및 실용화로 안전축산식품 생산기술개발 및 기반확립과 종축의 질병청정화 기술개발과 이의 현장정착반영의 성공에 달려 있다고 본다.

▶수의과학연구소는 '95년도를 질병피해 최소화 원년의 해로 정하고 돼지 설사병센터 등 6개 긴급기동방역연구반을 편성하고 각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대학 및 양축농가와 연대하여 현장문제해결을 위한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와 신속한 방제기능을 통한 질병피해예방을 위한 연구지도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세계 10여개 기관 및 대학교와 공동연구 및 전문가 교류를 통한 첨단기술 수용과 훈련으로 한국축산이 국제경쟁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완벽한 추진대책과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